

‘DMZ 유산과 지역발전’에 대한 토론문

정주연 / 제주대학교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는 과거 중무장되어 있던 곳이 이름만 비무장지대로 바뀌었으며 현재 DMZ 탄생(6·25 종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지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착수한 'DMZ 문화·자연유산 종합실태조사' 및 문화재청과 강원도·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사전단계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와 DMZ HELP센터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 지난 7월에 주최한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MZ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연구지역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같이 이미 지오파크로 선정되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도 비교·대조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라 사료됩니다.

토론자는 발표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DMZ를 구성하는 유산으로 발표자분께서는 문화·역사 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DMZ에 남아있는 유산 중 무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DMZ의 지역발전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DMZ 지리지에 대해 제시해 주셨는데 DMZ 지리지 같은 경우 한반도 DMZ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침서로서 DMZ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DMZ의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2020년부터 시작된 연구사업¹⁾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DMZ 비무장지대²⁾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DMZ 아카이브라는 항목이 있어 발표자분께서 설명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주최가 어디인지, 그리고 강원도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따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발표자의 자료 14페이지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발전 방안의 하나로 학술 및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DMZ 지오투어리즘'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³⁾ 이 부분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발표자의 자료 20페이지에 언급되었듯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1)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재공고] 비무장지대(DMZ) 지리지 발간, <https://www.ngii.go.kr/kor/bid/view.do?sq=1858>

2) DMZ 비무장지대 홈페이지, <https://dmz.gg.go.kr/>

3)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홈페이지 2019 특수분야 직무연수 'DMZ 교사연수_철원' 안내(2020년 겨울), <http://www.dmzhelp.or.kr/sub03.html>

다루고 있는 ‘여행지리’ 과목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일선에서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는 여행지리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교원 연수 프로그램 또는 다른 경로로 ‘여행지리’ 교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개발하고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9년 7월에 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는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퍼민 에두아르 마토코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지난 9월 9일 통일부가 주최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보낸 특별 영상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⁴⁾ 문화재청과 강원도, 경기도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철원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를 진행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제도는 1972년에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2년 30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네 가지 전략목표 <4C>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를 높이고, 세계유산의 효과적 보존(Conservation)을 보장하며, 세계유산협약 체결국의 역량을 키우고(Capacity-building),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 및 지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C에 지역사회(Community)가 더해져 다섯 가지 전략목표, 즉 <5C>가 바로 현재 세계유산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에 의하면 유산은 유산이 위치한 지역과 사람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유산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유산을 형성하였던 주체이자 이미 만들어진 유산과 함께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것, 즉 이들의 자발적인 보존관리 참여가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경기도는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성동마을의 이장인 김동구씨를 비롯하여 일부 마을 주민들은 현재 마을 주민들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후 DMZ 일원이 상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쳤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DMZ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⁶⁾. 이와 관련하여 혹시 강원도도 지역주민과 함께하였던 포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본 연구주제는 유산과 지역사회를 가장 잘 나타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시

4) 유네스코 "'남북 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문대통령 노력지지" 연합뉴스 2020년 9월 9일 기사.

5) 강원도·경기도·문화재청 '비무장지대(DMZ) 철원 화살머리·백마고지' 실태조사 매일일보 2020년 10월 20일 기사.

6)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DMZ 경기도뉴스포털 2019년 7월 17일 기사,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_m.do?number=201907171640317055C048

간접, 공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 있는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발표가 DMZ유산과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